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2호 [주제 제25485호] 주제 105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우리 아이들은 억만금
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
고 하시며 이 땅우에 한
없이 따사로운 후대사
랑, 미래 사랑의 정치를
펼쳐 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어버이
사람에 떠발트리워 강원
도 12월6일소년단야영
소가 훌륭히 개진됨으로
써 아이들의 명랑한 웃
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
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강원도 12월
6일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마
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위원장 박
정남동지와 야영소의 일
꾼들이 맞이하였다.

문천시의 경치좋은 바
다기슭에 한복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진 강
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는 강원도
안의 학생소년들이 누구나 찾아와 야
영생활을 마음껏 즐길수 있는 종합적
인 광외교양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최상의 수준

에서 새로 개건할때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형성안도 여러차
례나 지도해주시었으며 개진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
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꽂피우기 위해 한사람같이 펼
쳐나선 강원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자
강력체 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낫파
밤이 따로없는 줄기찬 투쟁을 펼침으
로써 짧은 기간에 방대한 개진공사를

도자체의 힘으로 끝내는 자랑찬 성과
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야영소
의 전경을 훤히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건축물들을 바다를 끼고있는 지대적 특
성에 맞게 파도를 헤가르는 끝대로 형

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일떠세워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펴심이
뜨겁게 어려있는 이곳 소년단야영소를
놓고보아도 자식들에게 열 가지, 백 가지
아낌없이 주고싶은 천부모의 심정으로
나라의 제일 좋은 곳들마다에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고자 아름다운 운영
준비실내를 구체적으로
로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첨연
초소로 딸리던 야전차를 세우시고
야영가는 아이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미술작품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면서 장군님은 전
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고난의 행
군, 강행군시기에 나온 노래구절이자파
고 드검게 외우시며 그처럼 어려운 나
날에도 아이들의 얼굴에 자그마한 그
늘이라도 절세라 마음쓰신 장군님의
뜻을 언제나 잊지 말고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우리가 지켜주자
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도서열
람실, 전자도서열람실, 종합지식보급실
들을 돌아보시면서 새 세기 발전하는
교육학적 요구와 년행심리적 특성에 맞
게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야
영기간이 그대로 폭넓은 지식을 소유
하는 과정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침실,
로리장의실, 식당의 로리실습실, 주
방, 식사실, 생활식사실들을 돌아보시
면서 지방자재를 가지고 꾸렸는데 손
색이 없다고, 아이들이 바디경치를 구
경하면서 식사도 하고 제순으로 밥과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어본 야영의 나
날을 일생토록 추억할것이라고 말씀하
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일에 국주의 교양실, 계급교양실, 전자오락실 등으로 이루어진 회관을 돌아보시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모든 요소들을 교양적의의 있게 꾸리었다고 하시면서 문명한 사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애영소의 문화교양시설과 생활조건을 더욱 잘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용도

체육관과 해수욕장에 꾸려진 사와장, 넓고 시원한 운동장을 돌아보시고 모든 서비스들과 인공잔디까지도 강원도에서 자체로 생산한것이라는 데만하고, 애영생들이 미움껏 뛰놀며 물과 마음을 든든히 단련 할 수 있겠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애영소 구내를 걸으시면서 소나무숲속에 들어앉은 애영소의 경치가 정말 좋다고, 수종이 좋은 나루와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더 많이 심고 가꾸어 주변 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며 애영소구내를 교재림으로 전환시켜 애영생들을 위한 교육장소

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가 훌륭히 개건될수 있는것은 이 땅우에 후대들을 위한 창조물들을 하나라도 더 마련하여 조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닌 강원도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리는 마음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원도 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힘을 밟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로 뽑고나가면서 소년단야영소

를 훌륭히 개건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뜻을 돌아보면서 자신께서 제일 만족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당의 국산화 방침을 높이 밟고 개선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도자체로 생산하여 리용한것이라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강원도인민들이 발휘한 자력자강의 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아이들이 밝게 웃어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

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던 우리의 아이들을 잘 키워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 같은 은덕이 애영생들에게 그대로 가닿게 함으로써 당의 은정이 린 애영소에서 언제나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장지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함북도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함북도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주었다.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승고한 뜻을 담고 평양학생소년궁전로동자 강애화, 조선국제태권도련원사 부원 행렬실은 끊임없이 혁유의 정을 안고 북부전선을 적극 지원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범여원 손정명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있어 피해지역 인민들과 교학을 함께 나누는 심정으로 지원활동을 실시하였다.

북부피해복구현장에서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전이라는것을 명심한 통파도지도국 산하단위로동자 김운별, 청홍지도국 부원 피현천, 산하단위 실장 정지혁, 부원 강은정, 로동사 최은정, 실경회, 평양제1중학교 교원 리경미, 사서 리금필은 많은 자금을 헌납하는 애국적 소행을 발휘하였다.

강원도미술창작사 학술연구원 박경립, 원산시 해안동 46인민반 김백만, 상봉 64인민반 김광설, 원서봉 86인민반 주영남, 승리봉 33인민반 리선미, 천내군 통령로로동자 36인민반 리선영, 창도군데총판리부로동자 백성국, 정철민, 김준철, 흥천군 장진리 14인민반 험행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행과 아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성실성의로 지원하였다.

인민사랑의 정체를 펼쳐가는 당의 은덕을 가슴뜨겁게 느끼며 실의주아동회 회장으로 흥천 독교승회, 평안북도인민병원 의사 최명일, 평안북도 판문례관로동자 김정근, 평안남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산하단위 책임자 험경근,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백두대지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려나가자

삼지연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월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답사를 철저히 관찰하기 위한 삼지연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월기모임이 6일에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군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삼지연군당위원회 위원장 리철의 보고에 이어 삼지연군

인민위원회 사무장 최봉길, 삼지연군 농업경영위원회 기사장 박철표, 삼지연군연합농장소장 조성숙,

삼지연학생소년궁전부총장 설기운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혁명정도의 그

비르신 속에서도 지난 11월 눈보라

는 북방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군인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데 대하여 걱정에 넘쳐 말하였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통상

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는 그 어린 천지 꽁과가 물아치고

세상이 천만번 변한다 해도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높이 추어드시었

던 혁명의 뿐을 기울 절대로 놓지

말고 장군님의 네원대로 이 땅에 부

강연영하는 인민의 학원, 사회주의 강

대국을 반드시 길러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삼지연군문화회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회정치활

동과 군중문화에 숨돌동을 활발히 벌

으로써 일군들과 청소년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혁명 사상으로

불어선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혁

명정신교양을 더욱 강화하고 삼지연

지구에서부터로동당만세소리, 사회

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기 위한 두정에서 고무적기치로 된

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학생

소년궁전의 여름꽃을 돌아보시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이곳 궁전에서

울리는 아이들의 밝고 평랑한 웃음

소리, 노래소리는 최후의 승리를 향

하여 친절하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에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

연혁명적지답사숙영소를 새 세기

의 요구에 맞게 더욱 풀풀히 천번시

케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지 않게 더욱 훌륭히 꾸리

며 혁명정신교양의 대로천박물관으

로, 강자능사의 본보기단위로, 혁

명전교양의 위력한 거점답게 꾸리

며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훈련의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을에 대하여 말하였다.

김정일에 국주의 소중히 간직하고 국토판례사업에 활사랑같이 펼쳐나 벽두대지를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번보시키며 지대적특성에 맞는 다수학감자종자를 대대적으로 심고 대홍대식파학농법을 적극 받아여 군용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꾸려나갈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헌지지도는 새로운 혁사적전환기에 펼쳐나 벽두대지를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번보시키며 지대적특성에 맞는 다수학감자종자를 대대적으로 심고 대홍대식파학농법을 적극 받아여 군용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꾸려나갈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자력자강의 불길들이 지방

공업공장들에서 지방의 풍부한 천료

를 이용하여 생산을 청상화하며 군

인의 교육, 문화, 보건, 체육부문들에

서 교육조선과 환경을 더욱 개선하

며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대

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펴나갈때 대

하여 말하였다.

보교자와 토본자들은 군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성지에

서 사는 궁지와 저부심을 안고 험

난경의 성세, 방폐로 천번시

케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지 않게 더욱 훌륭히 꾸리

며 혁명정신교양의 대로천박물관으

로, 강자능사의 본보기단위로, 혁

명전교양의 위력한 거점답게 꾸리

며 혁명정신교양의 단체별보로, 혁

명전교양의 단체별보로, 혁

명전교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절세의 애국자

조국청사에 특기할 역사적인 당제 7차대회와 더불어 전대미문의 눈부신 승리를 펼친 뜻깊은 이해 1·2월의 날과 날이 흐르고 있다.

우리 청년군민들은 사연많은 1·2월의 언역에 숨겨져 서서 지난 5년간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하고 있다.

5년간, 결코 새 월은 아니다. 하지만 보통 때의 50년, 100년간에 비할 수 없는 단단한 사연을 안은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날과 날로 수놓아진 우리 조국의 5년간이다.

김정일同志에게 영광을 헌신한 혁명영애와 함께 조국행사에 남기 위한 김정일동지에서 영광한 만한 혁명영애와 함께 조국행사에 남기 위한 김정일동지에게 영광의 모습이다.

우리의 사회주의 강국건설전사가 얼마나 피어린 길이었는가를, 우리가 출발 때가 걸어온 길이 하지 말아야 함을 천안에 억년 철리로 새겨주는 유일한 부름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영원한 전사, 제자들이여,

하늘이 통제로 무너져내린 것 같은 비보에 절하여 우리 다같이 억이 막혀 가슴을 뛰어들고 땅을 치어 호痛苦하면 비어나는 그늘을 떠새겨보시라.

종령으로 오면 기찬 치도를 빙어오신 장군님, 신령과 청진육체자로로 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그에 대하여 전혀 내색하지 않고서 강의 외지로 이겨내시면서 무장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신 애국자입니다.

1·2월에 들어와 의료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특별히 전강에 주의 하면서 한마디 거듭 거듭 말씀을 했다. 어떤 날에는 지구의 경강상태로는 현지지도를 하실 수 없다고 애원하다 싶이 간청하였고, 출동시마다나섰다.

그때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는 아직 가길 떠나지 않아요, 내가 가야 온 나래에 송파의 불경이 라면지고 인민들이 잘살수 있게 된다고 하면서 결단과 강행 군속도를 높이시었다.

한번 토록 풀지 못할 그 용이리풀

가슴 깊이 물어 두루 걸친 경에 하는

김정은同志께서 비통한 하이로 말끔하시였다.

나도 그 길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천만마늘들 모두가

아버지장군님 천년길 걸지 마시라고

마음속으로 네원하면서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을 염마리 아래에 소원하였다.

인민을 위한 어머니당

의 은혜로운 사랑이 커갈

수를 이 땅에 더 높이 올

려가는 아버지가 있다.

사회주의만세소리, 조국

동방당대세소리,

천안군민의 심장의 울

림인 이 적정의 분출을

대할 때마다 우리 조국

인민에 중증질의 사회

주의학으로 더욱 꽂고

워주신 대학원의 기술

뜨겁게 밝혀온다.

경에 하면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빛도 떠나고 물

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

다는 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 계신 인민사랑의

이 순간에 뜻이 되고

있지였습니다.》

주제 7·1(1988.2.24.)

이 저물어 가던 1·2월초,

급히 열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서는 한 책임임원에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도안

의 한 광산에서 로동보호

조건을 지어주지 못하여

로동자들에게 고통을 준

책임때문이었다.

인민을 위하여 목숨하는 문제

에 있어서 그 어느 개별적일 군의

결함이든간에 그것이 인민의 행

복을 침해할 때 그 이름의 괴

괴를 떠나는 것이다.

인민의 사연을 듣는 순간에

우리 조국수호당은 천년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당부를 빼내 새기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뛰어나온다.

인민의 사연을 듣는 순간에

우리 조국수호당은 천년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당부를 빼내 새기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뛰어나온다.

인민의 사연을 듣는 순간에

우리 조국수호당은 천년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당부를 빼내 새기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뛰어나온다.

인민의 사연을 듣는 순간에

우리 조국수호당은 천년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당부를 빼내 새기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뛰어나온다.

인민의 사연을 듣는 순간에

우리 조국수호당은 천년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당부를 빼내 새기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뛰어나온다.

인민의 사연을 듣는 순간에

우리 조국수호당은 천년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당부를 빼내 새기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뛰어나온다.

인민의 사연을 듣는 순간에

우리 조국수호당은 천년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당부를 빼내 새기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뛰어나온다.

인민의 사연을 듣는 순간에

우리 조국수호당은 천년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당부를 빼내 새기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뛰어나온다.

인민의 사연을 듣는 순간에

우리 조국수호당은 천년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당부를 빼내 새기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뛰어나온다.

인민의 사연을 듣는 순간에

우리 조국수호당은 천년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당부를 빼내 새기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뛰어나온다.

인민의 사연을 듣는 순간에

우리 조국수호당은 천년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당부를 빼내 새기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뛰어나온다.

인민의 사연을 듣는 순간에

우리 조국수호당은 천년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당부를 빼내 새기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뛰어나온다.

인민의 사연을 듣는 순간에

우리 조국수호당은 천년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당부를 빼내 새기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뛰어나온다.

인민의 사연을 듣는 순간에

우리 조국수호당은 천년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당부를 빼내 새기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뛰어나온다.

인민의 사연을 듣는 순간에

우리 조국수호당은 천년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당부를 빼내 새기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뛰어나온다.

인민의 사연을 듣는 순간에

우리 조국수호당은 천년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당부를 빼내 새기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뛰어나온다.

인민의 사연을 듣는 순간에

우리 조국수호당은 천년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당부를 빼내 새기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뛰어나온다.

인민의 사연을 듣는 순간에

우리 조국수호당은 천년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당부를 빼내 새기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뛰어나온다.

인민의 사연을 듣는 순간에

우리 조국수호당은 천년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당부를 빼내 새기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뛰어나온다.

인민의 사연을 듣는 순간에

우리 조국수호당은 천년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당부를 빼내 새기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미국은 극단적인 대조선《인권》소동의 수치스러운 파멸이 저들에게 차례질 숙명이라는 것을 알고나 있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문제연구소 공개질문장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인권재판판》이라도 된듯이 행세하며 《인권문제》를 구실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위를 더욱 표출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구의 지배질서를 허용하는 반체제주권적인 나라들에 예외 없이 《악의 나라》, 《인권문제》를 암고 있는 나라들은 끝지지 불하고 제도 전복을 피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비자적 인 발전과 행동력과 도화에 당황당조 하여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정치화, 극대화함으로써 어떻게 하나 우리를 고립압박해보려는 비렬한 모략소통에 밀집적으로 베어놓고 있다.

임기말에 치른 오바마와 국무장관을 비롯한 태국자들이 저지급 《북조선인권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방법을 헤쳐내고 있으며 미 국회에서는 《북조선인권법》을 2022년까지 더 연장하겠다고 고이고 있다.

더우기 가소로운 것은 미국이 퍼를 끊고 조국을 버리고 탈안한 일간주간들이 생계 유지와 연명을 위해 늘 어놓은 《인권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적대시되는 판결과 이지지 않는 시각을 가진 미국 정치자들의 눈에는 제대로 보일려가 만무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정치적 자유와 권리라는 물론으로 풍과 휴식의 권리, 교육과 의료봉사를 달을 권리로 비롯하여 사회적 인간이 누리고자 할 권리들로 점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공화국공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유태와 푸성지료제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평생 한 글자도 아는 듯한 아들이고 국가에서 지어준 궁궐 같은 살림집의 주인으로 피는 꿈같은 현실이 철저히 짚고 있다.

인민의 지향과 요구, 히파 편의를 최우선, 길대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멀사복무하는 참디움 현실을 놓고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에 주목으로 써먹는 저들의 《인권기준》을 적용하여 하거나 더우기 《인권》을 윤리로 존중하는 우리 사회의 주제로를 감히 아래로 한다면 그 독적이다. 그 독적이다는 것을 세계에 알릴수록 더 이상은 아니며 당장은 우리에게 풀어놓고 있다.

미국은 무모한 반공화국 《인권》 소통이 막강한 군대과 지역자강으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영광에 먹칠을 하고 우리의 사랑과 제도를 딛밟해보려는데 불순한 정치적 복목을 두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명명백백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통제 연구소는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미국의 황탕무게와 반공화국 《인권》 소통을 험하게 만족하면서 그 파멸의 불가피성을 선고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실상을 발표한다.

1. 미국은 렘자와 인민이 흔연일체를 이루고 합당은 인권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인권실상에 대하여 알기나 하고 면밀히는가.

미국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해 《법률정권》, 《법률정권》이라고 마구 험하면서 그 무슨 《인권문제》를 운운 하다. 못해 감히 우리 의 최고 존엄까지 걸고드는 천인공노할 만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어 이전 조선인권상황판련 유엔 《특별보고자》라는 얼치기까지 내세워 우리에 대한 《인권문제》의 일환으로 《윤리법》을 비롯한 국제체육경기 참가를 제재해온다. 이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들고나오게 하며 신성한 융합평화까지 더럽힐고 있다.

우리의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미국이 가련하기 그지없다.

우리 공화국은 사랑 중심의 정치 철학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을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모든 것을 인민대중을 위하여 목표하게 하는 정직한 인민의 세계에 유일하게 인정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미국은 혼연일체를 이루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실상을 강요해온 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원예보에 떠난 생본인도 미국이고 오늘날 비자적인 행정과 도화에 부단히 떠밀고 있는 일본인으로 인민에게 세제에 대한 대조선적 대조선적 대조선적 행위를 강제로 한다.

우리의 혼연일체는 일본인으로서는 전쟁기운을 감돌고 있다.

스쳐보낼 수 없는 것은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부문별로 활동한 평가가 우리를 절고 진행된다는데 있다.

그야말로 남을 걸고들면서 세 리축만을 펴는 일본특유의 간접성과 마법치성의 극치이다.

침략과 약탈을 염으로 삼아온 일본의 사무라이 후예들이 우리와의 《위험》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것은 주민들속에 우리에 대한 증오사상을 고취시켜 제침마당설현에 써먹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지나온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봄에 우리 나라가 일본을 침략하거나 식민지화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도리어 일본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화하였다.

수백년전부터 우리 나라 역사에 의해 일본을 침략하는 이들을 남긴 것이 험도의 악만투리를 이었으며 19세기 말엽부터 주변국들과 전쟁을 벌리고 20세기 초에 물러나 우리 나라를 강점한 것도 바로 왜나라족수들이었다.

그런 침략의 적을 가진 일본의 반동지

우리 나라에서처럼 평도자와 인민이 사랑과 정으로 협력적 대화로 굳게 결속되어 평도자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맡고 인민은 평도자를 삶의 대양으로, 어버이로 보시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참모습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는 평범한 로동자, 농민, 학자, 예술인, 민으로부터 부터 철부지아들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평도자를 봐야만 듣고있던 속삭각보다. 아끼고 해여지면 못살 것 같아 그 손길 꾹 쪘고 끄기로 눈물을 흘려는 감동없이 볼수 없는 화풀들이 매일같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가 만난을 해치면서 정의의 핵연체력을 보유한 것은 우리 제도를 암살해보려는 미국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정직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천민민 정당한 자주적 조치이다.

세기와 대대를 이어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적 대조선적 행위를 보여주는 미국 《인권문제》를 고립압박해 통의 미지수수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 회국에 대한 전쟁도발의 핵밀집형을 만들어보려는 음흉한 기도가 잘 놀랐을 때마다 웃고나가는 힘차운 《북조선인권법》제217회를 빌려고 있다.

우리가 만난을 해치면서 정의의 핵연체력을 보유한 것은 우리 제도를 암살해보려는 미국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정직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천민민 정당한 자주적 조치이다.

세기와 대대를 이어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적 대조선적 행위를 보여주는 미국 《인권문제》를 고립압박해 통의 미지수수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 회국에 대한 전쟁도발의 핵밀집형을

문제는 최근 미국이 평판적으로 벌리고 있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굳게 결속되어 평도자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맡고 인민은 평도자를 삶의 대양으로, 어버이로 보시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참모습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근처에는 조미핵대결에서 원예 통의 미지수수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 회국에 대한 전쟁도발의 핵밀집형을

우리가 만난을 해치면서 정의의 핵연체력을 보유한 것은 우리 제도를 암살해보려는 미국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정직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천민민 정당한 자주적 조치이다.

세기와 대대를 이어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적 대조선적 행위를 보여주는 미국 《인권문제》를 고립압박해 통의 미지수수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 회국에 대한 전쟁도발의 핵밀집형을

우리가 만난을 해치면서 정의의 핵연체력을 보유한 것은 우리 제도를 암살해보려는 미국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정직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천민민 정당한 자주적 조치이다.

세기와 대대를 이어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적 대조선적 행위를 보여주는 미국 《인권문제》를 고립압박해 통의 미지수수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 회국에 대한 전쟁도발의 핵밀집형을

문제는 최근 미국이 평판적으로 벌리고 있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굳게 결속되어 평도자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맡고 인민은 평도자를 삶의 대양으로, 어버이로 보시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참모습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근처에는 조미핵대결에서 원예 통의 미지수수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 회국에 대한 전쟁도발의 핵밀집형을

우리가 만난을 해치면서 정의의 핵연체력을 보유한 것은 우리 제도를 암살해보려는 미국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정직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천민민 정당한 자주적 조치이다.

세기와 대대를 이어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적 대조선적 행위를 보여주는 미국 《인권문제》를 고립압박해 통의 미지수수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 회국에 대한 전쟁도발의 핵밀집형을

우리가 만난을 해치면서 정의의 핵연체력을 보유한 것은 우리 제도를 암살해보려는 미국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정직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천민민 정당한 자주적 조치이다.

세기와 대대를 이어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적 대조선적 행위를 보여주는 미국 《인권문제》를 고립압박해 통의 미지수수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 회국에 대한 전쟁도발의 핵밀집형을

문제는 최근 미국이 평판적으로 벌리고 있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굳게 결속되어 평도자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맡고 인민은 평도자를 삶의 대양으로, 어버이로 보시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참모습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근처에는 조미핵대결에서 원예 통의 미지수수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 회국에 대한 전쟁도발의 핵밀집형을

우리가 만난을 해치면서 정의의 핵연체력을 보유한 것은 우리 제도를 암살해보려는 미국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정직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천민민 정당한 자주적 조치이다.

세기와 대대를 이어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적 대조선적 행위를 보여주는 미국 《인권문제》를 고립압박해 통의 미지수수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 회국에 대한 전쟁도발의 핵밀집형을

우리가 만난을 해치면서 정의의 핵연체력을 보유한 것은 우리 제도를 암살해보려는 미국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정직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천민민 정당한 자주적 조치이다.

세기와 대대를 이어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적 대조선적 행위를 보여주는 미국 《인권문제》를 고립압박해 통의 미지수수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 회국에 대한 전쟁도발의 핵밀집형을

문제는 최근 미국이 평판적으로 벌리고 있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굳게 결속되어 평도자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맡고 인민은 평도자를 삶의 대양으로, 어버이로 보시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참모습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근처에는 조미핵대결에서 원예 통의 미지수수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 회국에 대한 전쟁도발의 핵밀집형을

우리가 만난을 해치면서 정의의 핵연체력을 보유한 것은 우리 제도를 암살해보려는 미국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정직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천민민 정당한 자주적 조치이다.

세기와 대대를 이어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적 대조선적 행위를 보여주는 미국 《인권문제》를 고립압박해 통의 미지수수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 회국에 대한 전쟁도발의 핵밀집형을

우리가 만난을 해치면서 정의의 핵연체력을 보유한 것은 우리 제도를 암살해보려는 미국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정직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천민민 정당한 자주적 조치이다.

세기와 대대를 이어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적 대조선적 행위를 보여주는 미국 《인권문제》를 고립압박해 통의 미지수수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 회국에 대한 전쟁도발의 핵밀집형을

문제는 최근 미국이 평판적으로 벌리고 있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굳게 결속되어 평도자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맡고 인민은 평도자를 삶의 대양으로, 어버이로 보시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참모습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근처에는 조미핵대결에서 원예 통의 미지수수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 회국에 대한 전쟁도발의 핵밀집형을

우리가 만난을 해치면서 정의의 핵연체력을 보유한 것은 우리 제도를 암살해보려는 미국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정직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천민민 정당한 자주적 조치이다.

세기와 대대를 이어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적 대조선적 행위를 보여주는 미국 《인권문제》를 고립압박해 통의 미지수수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 회국에 대한 전쟁도발의 핵밀집형을

우리가 만난을 해치면서 정의의 핵연체력을 보유한 것은 우리 제도를 암살해보려는 미국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정직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천민민 정당한 자주적 조치이다.

세기와 대대를 이어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적 대조선적 행위를 보여주는 미국 《인권문제》를 고립압박해 통의 미지수수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 회국에 대한 전쟁도발의 핵밀집형을

문제는 최근 미국이 평판적으로 벌리고 있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굳게 결속되어 평도자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맡고 인민은 평도자를 삶의 대양으로, 어버이로 보시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참모습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근처에는 조미핵대결에서 원예 통의 미지수수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 회국에 대한 전쟁도발의 핵밀집형을

우리가 만난을 해치면서 정의의 핵연체력을 보유한 것은 우리 제도를 암살해보려는 미국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정직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천민민 정당한 자주적 조치이다.

세기와 대대를 이어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적 대조선적 행위를 보여주는 미국 《인권문제》를 고립압박해 통의 미지수수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 회국에 대한 전쟁도발의 핵밀집형을

우리가 만난을 해치면서 정의의 핵연체력을 보유한 것은 우리 제도를 암살해보려는 미국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정직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천민민 정당한 자주적 조치이다.

세기와 대대를 이어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적 대조선적 행위를 보여주는 미국 《인권문제》를 고립압박해 통의 미지수수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 회국에 대한 전쟁도발의 핵밀집형을

문제는 최근 미국이 평판적으로 벌리고 있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굳게 결속되어 평도자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맡고 인민은 평도자를 삶의 대양으로, 어버이로 보시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참모습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근처에는 조미핵대결에서 원예 통의 미지수수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 회국에 대한 전쟁도발의 핵밀집형을

우리가 만난을 해치면서 정의의 핵연체력을 보유한 것은 우리 제도를 암살해보려는 미국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정직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천민민 정당한 자주적 조치이다.

세기와 대대를 이어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적 대조선적 행위를 보여주는 미국 《인권문제》를 고립압박해 통의 미지수수단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 회국에 대한 전쟁도발의 핵밀집형을

우리가 만난을 해치면서 정의의 핵연체력을 보유한 것은 우리 제도를 암살해보려는 미국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정직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천민민 정당한 자주적 조치이다.

세기와 대대를 이어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적 대조선적 행위를 보여주는 미국 《인권문제》를 고립압박해 통의 미